



지난해 화순 봄꽃 축제장 상성정원



지난해 화순 봄꽃 축제 남상 야경

화순의 봄, 낮-밤 잇는다... 체류형 축제 '대향연'



여기가 핫플 '화순 봄꽃 축제'

봄꽃이 절정을 이루는 4월, 전남 화순이 낮과 밤을 아우르는 새로운 축제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단순 관람형을 넘어 야간경관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축제'로 확장된 '2026 화순 봄꽃 축제'를 통해 화순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번 축제가 남도 대표 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축제를 통해 달라질 화순 관광의 변화 흐름과 의미를 짚어본다.



지난해 화순 봄꽃 축제 기간 중 아이들이 방문해 즐기는 모습



화순군이 봄의 절정을 맞아 '2026 화순 봄꽃 축제'를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봄꽃 야행(夜行)'을 핵심 콘셉트로 내세웠다. 낮 시간대에 집중됐던 기존 꽃 축제의 한계를 넘어, 밤까지 이어지는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며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히 꽃을 '보는' 축제가 아닌, 머물고 즐기고 소비하는 '복합형 관광 콘텐츠'로 진화했다는 평가다.

△꽃강길 따라 펼쳐지는 2.1km 봄꽃 향연

축제의 중심은 화순을 대표하는 산책 명소인 꽃강길이다. 약 2.1km 구간을 따라 유채꽃과 각종 봄꽃이 만개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꽃길은 단순한 경관을 넘어 '감는 경험'을 제공한다. 자연의 흐름과 함께 천천히 이동하며 봄의 변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공간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플라라가든, 봄꽃정원, 생태정원, 어린이정원, 웰컴가든 등 5개 테마정원이 조성돼 관람 동선마다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플라라가든은 색채 중심의 화려한 연출로 시각적 만족도를 높였고, 생태정원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살려 휴식형 공간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정원은 체험 요소를 강화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야생화와 다육식물 전시가 더해지며 단순한 꽃 관람을 넘어 '식물 문화 체험'으로 확장된 점도 눈에 띈다.

17~26일 꽃강길·남산공원 일원 개최... '봄꽃 야행' 콘셉트 야간경관·체험·공연·먹거리 등 결합... 색다른 분위기 매력 셔틀버스·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연계·상권 '활력' 기대

△밤이 더 빛나는 축제... 남산공원 야행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야간 콘텐츠다. 중심 무대인 남산공원은 공원 전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조명과 설치미술, 자연경관이 결합된 야간 연출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은은한 빛 아래 펼쳐지는 산책길은 '봄밤 감성'을 극대화하며, 사진 촬영 명소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야간경관은 단순한 조명 장식을 넘어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소다. 관광객이 낮에 방문해 밤까지 머물도록 유도하는 핵심 콘텐츠로 기능한다.

실제 최근 지역 축제의 경쟁력은 '야간 콘텐츠'에서 판가름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순군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공연으로 완성되는 봄... 전 세대 아우른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17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개막식 이후 진행되는 '공정식 가요제'에는 김윤임을 비롯해 신승태, 현진우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대형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지는 '봄밤 콘서트'는 축제의 또 다른 축이다. 18일에는 이석훈과 별, 19일에는 거미 등이 무대에 올라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펼친다.

이 외에도 축제장 곳곳에서는 버스킹, 매직쇼, 버블쇼 등 소규모 공연이 이어지며 관람객과의 거리감을 좁힌다.

대형 공연과 생활형 공연이 조화를 이루며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먹고 즐기고 머문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 축제는 지역경제와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먹거리 공간에서는 향토음식을 중심으로 한 '배장 이포차', 푸드트럭,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된다. 특히 '탄광 아이스크림', '국화빵'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가 관광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고인돌 전통시장에서는 야시장이 열려 또 하나의 축제 공간을 형성한다. 축제장과 전통시장

을 연결해 소비 동선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는 단순 방문객 유입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다.

△청소년·다문화 참여... 확장된 축제

부대행사도 대폭 확대됐다.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또 '찾아가는 도민 힐링 음악회', 다문화 모국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공연이 이어진다.

화순군립미술관과 연계한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돼 축제의 문화적 깊이를 더한다.

단순한 관광 이벤트를 넘어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접근성·안전까지... 체계적 운영

방문객 편의를 위한 준비도 강화됐다. 주말에는 무료 셔틀버스 3개 노선이 운영돼 주요 거점과 축제장을 연결한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꽃강길 음악분수 공연은 하루 4차례 운영돼 낮과 밤 모두 볼거리를 제공한다.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종합상황실 운영, 의료 인력 배치, 위생 점검, 교통 통제 등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유모차와 휠체어 대여, 수유실 운영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띈다.

△'보는 축제'에서 '머무는 축제'로

'2026 화순 봄꽃 축제'는 단순한 계절 행사를 넘어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야간경관과 공연, 체험, 먹거리, 지역산품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형체 관측체육실장은 "꽃강길과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낮과 밤이 이어지는 관광 콘텐츠를 구축했다"면서 "방문객들이 화순에서 봄의 풍경과 여유를 온전히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